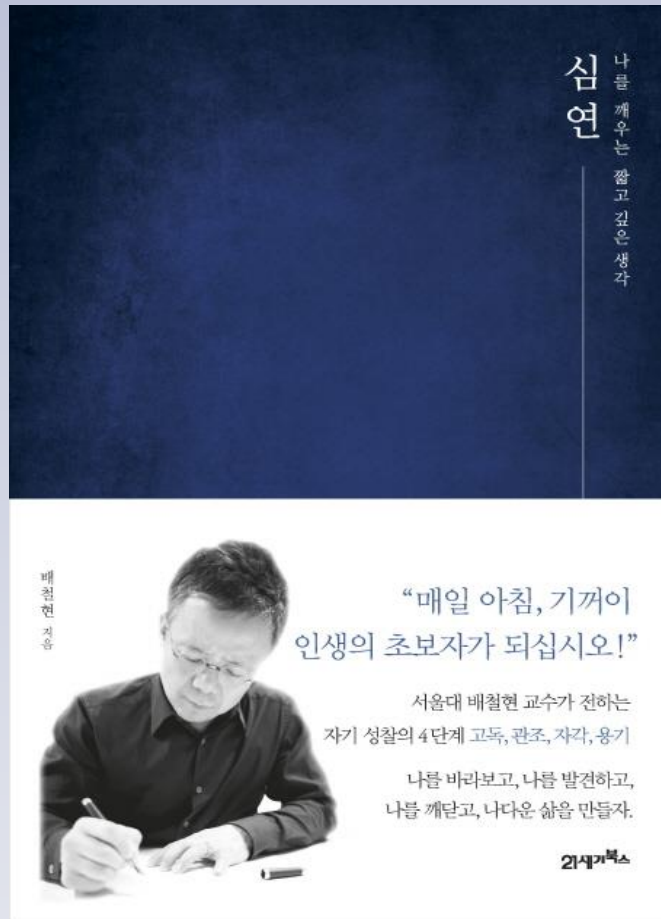


심연

나를 깨우는 짧고 깊은 생각



저자: 배철현

고대 오리엔트 문자와 문명을 전공한 고전문헌학자다.

고대 오리엔트 언어들에 매료되어 하버드대학교 고대근동학과에서 셈족어와 인도-이란어를 전공했다.

고대 페르시아제국 다리우스 대왕의 삼중 쇄기문자 비문인 베히스툰 비문의 권위자다.

2003년부터 서울대학교 종교학과 교수로 유대교, 그리스도교, 이슬람교와 그 이전 문명과 종교를 가르치고 있다.

2009년에서 2013년까지 격주로 주말에 중국 베이징대학교에서 오리엔트 언어들을 가르쳤다.

2015년 미래 혁신 학교 '건명원'을 기획하여 출범시켰고, KBS1 텔레비전 과학 프로그램 [장영실쇼]를 진행하고 있다.

최근 저서로는 『신의 위대한 질문』, 『인간의 위대한 질문』이 있으며, 『문자를 향한 열정: 세계 최초로 로제타석을 해독한 상폴 리옹 이야기』, 『성서 이펙트』와 『꾸란 이펙트』등을 우리말로 옮겼다.

목차

1부 고독, 혼자만의 시간 갖기

순간, 봄의 약동으로 싹이 트는 찰나의 시간
생각, 인생이라는 집을 짓도록 도와주는 설계도
현관, 진화를 위해 거쳐야 하는 장소
인내, 열정과 몰입이 안겨주는 선물
침묵, 자신에게 몰입할 때 들리는 내면의 소리
실패, 어두운 숲속에서 길을 잃은 적이 있는가
동굴, 환상과 공포가 함께 존재하는 매혹적인
공간

2부 관조,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발견하기

묵상, 나를 돌아보게 하는 제3의 눈
단절, 과거의 나를 과감히 버리는 용기
송고, 불완전한 나를 끌어안는 삶의 태도
사유, 내가 나에게 줄 수 있는 거룩한 선물
관찰,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연습
오만, 자신에게 닥쳐오는 위험을 감지하지
못하는 상태
심연, 이제껏 발을 들인 적 없는 미지의 땅

3부 자각,

비로소 찾아오는 깨달음의 순간

괴물, 나를 조정하는 내 안의 또 다른 나
임시 치아, 현실에 안주하고 있는 나를 바꿀 유일한 무기
가면, Show yourself! 당신 자신을 내게 보여주십시오
갈림길, 내가 선택한 그 길에는 발자국이 찍혀 있지 않았다
멘토, 스스로 운명을 개척하려는 자에게만 찾아오는 스승
진부, 나에게 찾아오는 새로움을 막는 훼방꾼
자립, 당신 자신과 무관한 그 어떤 것도 추구하지 마십시오

4부 용기,

자기다운 삶을 향한 첫걸음

몫, 당신의 마아트는 무엇인가
열정, 나를 가장 나답게 만드는 힘
믿음, 자기 자신을 구원하는 유일한 길
아우라, 당신의 아우라는 얼마나 숭고한가
착함, 자신에게 소중한 것을 인내로써 지켜내는 행위
웁음, 양심을 용기 있게 행동으로 웁기는 것
빛의 축제, 자기 자신이 곧 별이다

위대한 SCGian이, 위대한 SCG를 만든다



지금, 행복하십니까?

우리는 행복의 기준이 내가 아니라 남에게 시선이 가있지 않은가요?
가장 행복한 사람은 나 자신에게 만족한 사람

What makes you interesting in life?

오늘 무엇이 내 삶을 재미있게 만들까?

오늘 어떤 프로젝트가 내 하루를 재미있게 만들까?

오늘 나의 가족과 나의 친구와 무엇이 나를 재미있게 만들까?

**위대한 개인이 위대한 사회를 만들고,
위대한 사회가 위대한 나라를 만든다.**

1부 고독, 혼자만의 시간 갖기



생각:

인생이라는 집을 짓도록 도와주는 설계도

- ▶ [소크라테스] 저는 누구에게 무언가를 가르칠 수 없습니다. 저는 그들이 생각하게 만들 뿐입니다.
- ▶ 사람은 누구에게나 자신만의 인생이 있고, 그것을 더욱 감동적으로 만들 수 있도록 우주는 우리 각자에게 **생각**이라는 고귀한 선물을 주었다.
- ▶ 세상 누구와도 같을 수 없는 "**나만의 영적인 DNA**" 찾아야 한다.
- ▶ **믿음**이란 자신에게 **중요한 한 가지**를 찾아 소중하게 지키는 삶의 모습이다.
- ▶ **천재**란 자신만의 **고유한 생각**이 있다는 것을 믿고, 그것을 **지속적으로 찾는 사람**. 그리고 찾아낸 그것을 소중히 여기며 일생 동안 묵묵히 실천하는 사람이다.
- ▶ 마음속에 숨어있는 이 천재성을 찾아내기 어려운 것은, 우리 스스로 나에 대한 사회(외부)의 평가가 진정한 자기 자신인 양 믿기 때문이다.
- ▶ 천재들은 자신의 욕망을 탐색하고 발견하고 매일매일 변화를 거듭하며, **나 자신을 더 아름다운 삶으로 인도하는 높은 차원의 시선**을 가지고 있다.

생각:

인생이라는 집을 짓도록 도와주는 설계도

- ▶ 고대 히브리어 '**샤아르 (shaar)**' 의미: 생각 · 성문 · 성문 위에서 쳐다보다.
 - ▶ 성문은 종교적인 의미를 지닌 신전의 문이기도 하다.
신전 안쪽은 성스러운 공간이기에 정결하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다.
 - ▶ 신전의 문 위에서 자신의 신전으로 들어가려는 나 자신을 '**관조하다**' 의미

**생각을 한다는 것은 삶의 여정 가운데 잠시 멈춰 서서 지금
내가 어디쯤 와 있는지, 그리고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정교하게 헤아리는
훈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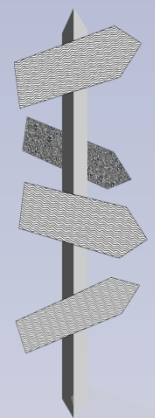
인내: 열정과 몰입이 안겨주는 선물

만일 당신이 어떤 일에 스트레스를 받았다면,
그 아픔은 그 일 자체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한 **당신의 생각**에서 옵니다.
당신은 당장 그것을 **무효화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

인내: 열정과 몰입이 안겨주는 선물

- ▶ **인내**는 인간을 다른 동물과 구분하는 최고의 덕목이다.
자신의 한계를 점점 넓힘으로써 처음에는 상상도 하지 못했던 지경으로 인도하는 마술 지팡이다.
- ▶ 인간은 왜 이렇게 스스로를 극한의 상황으로까지 몰아가는 것일까.
달리기 선수들은 이 순간 특별한 엑스터시를 경험한다고 말한다.
그리고 그 경험을 신뢰한다고 말한다. 더 이상 달릴 수 없을 것 같은 극한 상황에 놓이는 순간 고통이 사라지면서 오히려 즐기며 달릴 수 있는 단계에 접어든다는 것이다.
- ▶ *세상의 모든 꽃들이 저마다 아름다움을 뽐내며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이유는 스스로에게 몰입해 있기 때문이다. 꽃들은 천재지변이 있더라도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에게 몰입한다.*
성창을 통해 자신의 임무를 찾아냈다면, 이제 해야 할 일은 하나다.
열정적으로 사랑하고 몰입하는 것.

실패: 어두운 숲속에서 길을 잃은 적이 있는가



- ▶ 나만의 길은 유일해서 더욱 가치 있고 아름답다.
다만 누구도 가본 적이 없는 길이기엔 나 스스로 안내자가 되어야 한다.
- ▶ **이탈리아 시인 '단테'**
중세의 어두운 숲에서 나와 새로운 시대를 열고자 했던 인물
- ▶ **단테 『신곡』** 1308년 ~ 1321년 사이 저술.
이 책을 통해 이탈리아 각 도시에서 사용하는 방언들을 통일했고,
이로써 이탈리아 정신을 통일하는 문필가로 거듭나다.
- ▶ ***“우리 인생 여정의 한가운데서, 나는 어두운 숲속에서 헤매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다. 그곳에는 반듯한 길이 숨겨져 있다.”***
- ▶ 『해리포터』 조앤 롤링” 딸을 돌보아야 했던 26살 이혼녀이자 런던의 노숙자 지옥의 한 가운데서 그녀는 사랑하는 딸이 있으며, 멋진 이야기를 엮어낼 수 있는 상상력과 오래된 타자기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자신 속에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강력한 의지가 숨어 있으며,
그것을 관철시킬 수 있는 끈기 또한 있음을 깨닫는다.

실패: 어두운 숲속에서 길을 잃은 적이 있는가

- ▶ 자신만의 임무를 현시하는 에피파니의 순간
에피파니 (epiphany) 는 ‘현현(顯顯)’을 뜻하는 고대 그리스어 ‘신이 자신을 찾는 이에게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을 의미
바닥 모를 심연으로 한없이 추락했었으나, 그 심연은 오히려 단단한 바닥이 되어 스스로 딛고 일어설 수 있도록 해주었다.
- ▶ ‘어두운 터널’은 조앤 롤링의 내면에 잠재해 있던 위대한 DNA를 끄집어내는 혹독하고도 필연적인 과정이 되었다.
- ▶ 어두운 숲속에서는 누구나 길을 잃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실패가 두려워 아예 숲속으로 들어가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는다.
그러나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는 것, 그것은 인생의 더 큰 실패다.**
훗날 숲속으로의 여행을 감행하지 않는 자신을 후회하게 될 뿐이다.
- ▶ 인간은 저마다 어두운 숲속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생존장비를 가지고 있다.
그것은 바로 **열정을 발휘하게 하는 나만의 고유 임무다.**
누구나 때가 되면 죽는다는 이 불변의 진리를 깨닫는다면
자신에게 진실로 의미 있고 아름다운 일에 집중할 수 있다.

**2부 관조,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발견하기**



묵상: 나를 돌아보게 하는 제3의 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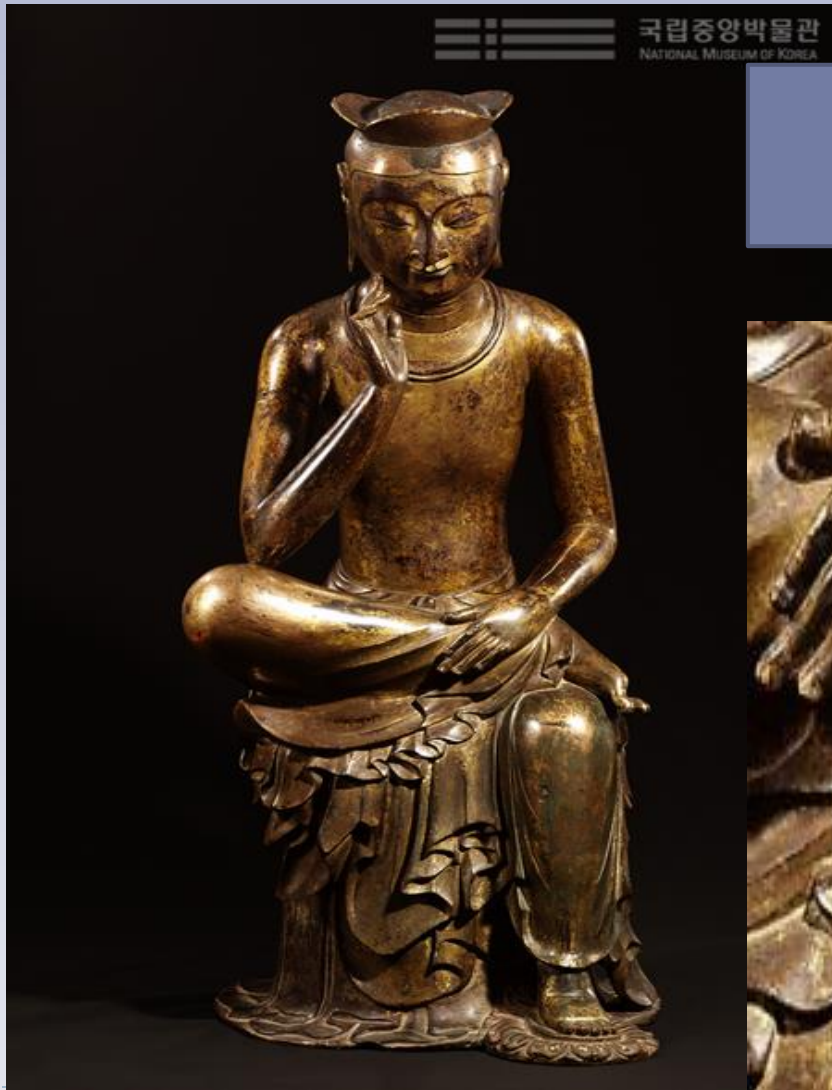
- ▶ 검토되지 않은 삶은 살 만한 가치가 없습니다. - 소크라테스-
- ▶ **관조(觀照):** 동일한 사물이나 사람을 깊이 응시하고 자신이 사라지는 상태로 진입하는 단계
아리스토텔레스는 관조를 그리스어로 ‘테오리아(theoria)’, 즉 ‘인간의 최선’ 이라고 했다. 이 ‘theoria’로부터 ‘theory(이론)’이 파생.
이론이란 고착된 편견이나 굳어진 도그마다 아니다.
- ▶ 고대 그리스 문명의 기반은 비극 경연에서 출발한다.
배우는 관객과 자신의 몰입을 돕기 위해 ‘가면’으로 얼굴을 가린다.
인간은 원래 가면을 쓴 존재다. 이는 ‘가식적인 존재’라는 말이 아니다.
‘우주에서 자신에게 맡겨진 유일한 배역을 알고 있는지 그것을 알았다면 최선을 다했는지를 묻는 존재라는 뜻이다.
관객은 무대 위의 배우가 아닌 바로 자기 자신을 제3의 눈으로 관조한다.
감정 이입과 관조, 몰입과 성찰이 동시에 이루어진다.
스스로 제3자가 되어 자기 자신을 보기 시작한 것이다.

묵상: 나를 돌아보게 하는 제3의 눈

- ▶ **살라미스 해전:** 문명의 중심이 오리엔트에서 그리스와 유럽으로 옮겨가는 중요한 시발점이 된 전쟁
기원전 480년, 당시 페르시아제국은 이집트부터 인디아까지 23개국을 점령한 인류 최초의 세계 제국이었다. 그리스의 도시국가들은 페르시아에 맞서 아테네를 중심으로 힘을 합쳤다. 그리고 살라미스 해협에서 거의 기적적으로 페르시아제국을 격퇴했다.
- ▶ **그리스 최초의 비극인 『페르시아인들』**에서 왜 페르시아제국이 아테네에 패했는지 그 이유를 설명한다. 바로 **“자만심”**
자만심이란 깊이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자신이 현재 누리는 혜택을 자신이 스스로 성취했다고 착각하는 마음의 상태
페르시아제국의 왕 크세르크세스는 자신을 깊이 돌아보는 관조적인 삶을 살지 못했기에, 인류 최초의 세계 제국을 멸망의 길로 들어서게 하는 비극을 초래했다.
- ▶ 반면 아테네인들 모두가 페르시아제국을 이겼다는 자만심에 빠지기보다 『페르시아인들』 비극을 보며 원수 크세르크세스와 함께 눈물을 흘린다.

**위대한 국가의 비결은 적까지 포용할 수 있는
연민을 가슴 깊이 지닌 민족이 되어야 한다는 것**

사유: 내가 나에게 줄 수 있는 거룩한 선물



국보 78호 금동반가사유상



사유: 내가 나에게 줄 수 있는 거룩한 선물

- ▶ **사유(思惟)**: 내 손에 쥐어져 있는 정과 망치를 통해 어제까지 내가 알게 모르게 습득한 구태의연함을 쫓아버리는 작업이다.
- ▶ 나를 더 나은 나로 변화시키는 현장은 내가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직장이며 집이고, 내가 만나는 사람이며 책이다.
그 일상은 때로는 지겹고 귀찮고 피하고 싶기도 하지만 통통 부은 발을 어루만지는 붓다의 왼손 같은 것이다.
- ▶ 예수는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다” 라고 단언한다.
천국은 죽은 다음에 가는 장소가 아니라 바로 여기, 농부가 매일 일구는 밭, 흙먼지를 뒤집어쓰며 잡초를 뽑고 벌레를 잡고 씨를 뿌리고 거두는 그 삶의 터전이다. 다만 감추어져 있어서 그 안에 든 보화를 우리가 모를 뿐이다.
그 보화를 발견하는 훈련이 바로 ‘생각’이다.

**결국 ‘사유’란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삶의 터전을 극락이라 여기며 매의 눈으로 있는 그대로의 나를 응시하는 것이다.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장소와 이 시간**이 나의 사유의 대상이며,
나를 위한 천국으로 만들고자 결심할 때 신은 우리에게 미소를 선물한다.**

**3부 자각,
비로소 찾아오는 깨달음의 순간**



임시치아:

현실에 안주하고 있는 나를 바꿀 유일한 무기

- 새끼 거북이들은 '카벙클 (임시치아)'로 알의 내벽을 깨기 시작한다. 내가 안주하고 있는 환경이 나의 멋진 미래와 자유를 억제한다면, 자신만의 카벙클을 만들어 그 환경에서 벗어나야 한다.
- 자신에게 주어진 환경을 세상의 전부라 여긴 채 죽음을 맞이할 것인가.
-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편견과 상식, 전통과 관습, 흥내와 부러움이라는 알을 깨고 더 넓은 바다를 향해 나아가는 일이다.



임시치아:

현실에 안주하고 있는 나를 바꿀 유일한 무기

- ▶ 우여곡절 끝에 도착한 바다에서 48시간 동안 미친 듯이 수영하며 향한 곳은 **바다의 가장 밑바닥인 심연**이다.
- ▶ 이곳은 그들이 가야 하는 본연의 장소다. 그곳에는 이들을 위협하는 큰 물고기 기들이 많지 않다. 뿐만 아니라 수압이 높아서 자신을 보호하고 있는 등딱지와 배딱지를 단단하게 만드는 수련의 장소이기도 하다. 이곳에서 새끼 거북이들은 자신들만의 인생 여정을 시작한다.
새끼 거북이가 어른 거북이가 되어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될 확률은 고작 **0.1%**에 불과하다. 1,000 마리 중 한 마리만 생존할 뿐, 대부분은 이 기나긴 여정 속에서 죽음을 맞이한다.
- ▶ 지금 경계에 서 있다면, 새끼 거북이처럼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경직된 세계관을 깨야 한다. 나를 보호하고 감싸주었던 알이 나를 감금한 채 죽게 하는 무덤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행복과 불행에 대해 인간의 본성이나 운명 탓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자신의 실수와 약함의 메아리일 뿐입니다.

- 데모크리토스 -

진부: 나에게 찾아오는 새로움을 막는 훼방꾼

- ▶ 영적이며 지적인 수련을 방해하는 훼방꾼 중 하나는 **‘진부(陳腐)’**함이다.
‘陳腐’라는 한자를 풀이하면 좀 특이한 구석이 있다.
진부는 ‘썩은 고기[腐]’를 남들이 보라고 ‘전시하는[陳]’ 어리석음을 뜻한다.
- ▶ 직원을 채용하는 기업마다 ‘참신(斬新)’한 인재를 원한다.
‘斬新’이라는 한자도 진부만큼이나 특이해서 참신한 인물이 되기가 얼마나 힘든지를 짐작할 수 있다.
‘참(斬)’자는 고대 중국에서 죄인을 죽이던 극형 틀인 수레와 도끼로 이루어져 있다.
참신이란 도끼로 치듯 과거의 구태의연함과 완전히 단절한다는 뜻이다.
- ▶ 소크라테스는 자신을 찾아온 사람과 격의 없이 대화하기를 즐겼다.
그는 상대방의 말을 경청한 뒤 그가 편견과 무지에 사로잡혀 있음을 넌지시 알려주었다. 말하자면 사람들이 자신들의 진부함을 스스로 헤아려 알도록 하는 것이 소크라테스식 대화의 진정한 목적이었다.

진부: 나에게 찾아오는 새로움을 막는 휘방꾼

- ▶ 진부함에 해당하는 영어 **'mediocrity'**는 '중간'을 뜻하는 'medi'와 '험한 산'을 뜻하는 'ocris'의 합성어다.

- ▶ **진부함이란 산의 정상에 오르겠다고 마음먹었지만 지친 나머지 산 중턱에서 머뭇거리는 상태를 뜻한다.**

처음에는 산 정상에 올라가 자신이 완벽을 향해 정진했음을 축하하고 싶어한다. 그러나 그런 **초심을 잃고 중간에서 머뭇거리는 게 서양인들에게 있어서 진부함의 의미**였다.

- ▶ 진부한 사람은 자신 속에서 흘러나오는 침묵의 소리를 듣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자신만의 삶의 안무를 갖지 못한다.

인간의 귀는 다른 사람들의 평가와 인정에 목말라하기 때문이다.

행복이란 자신이 만들어낸 삶에 달려 있다는 사실을 알기란 쉽지 않다.

- ▶ **남의 것을 따르는 삶이 계속되는 한 자신만의 고유한 문법을 만들어내는 참신한 삶은 찾아오지 않는다.**

- ▶ 진부는 우리를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머뭇거리게 하는 끔찍한 휘방꾼이다.

4부 용기, 자기다운 삶을 향한 첫걸음



몫: 당신의 마아트는 무엇인가

- ▶ **몫은 내게 맡겨진 절체절명의 임무이자 나만이 할 수 있고 나의 개성이 마음껏 드러나는 그 어떤 것이다.**
- ▶ 마아트는 우리가 살면서 반드시 해야 할 생각과 말 그리고 행동을 뜻한다. 당신은 내가 해야 할 마아트가 무엇인지 고민하며 살고 있는가. 아니면 그저 주어진 환경에 적응하며 살고 있는가. 나 자신의 마아트가 무엇인지 알려고 노력하는 삶, 그 과정이 바로 도다. 고대 이집트인들에게 구원이란 인간이 얼마나 위대한 일을 했느냐가 아니라 자신에게 주어진 미션을 깨닫고, 자신에게 맡겨진 그 마아트를 이루려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나의 마아트는 무엇인가?
가정에서 나의 몫은 무엇인가?
회사에서 나의 몫은 무엇인가?
사회에서 나의 몫은 무엇인가?
친구와 관계에서 나의 몫은 무엇인가?

착함:

자신에게 소중한 것을 인내로써 지켜내는 행위

- ▶ 붓다의 가르침 중에 **“도덕적으로 사는 것”이 “남을 위해 사는 것”**이라는 말이 있다.
붓다는 히말라야 산맥에서 홀로 유유자적하는 삶을 살지 않고, 땀내 나고 가난하고 북적이는 시장 바닥에서 보통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며 자신 뿐만 아니라 모두를 위한 헌신적인 삶을 살았다.
- ▶ **인생 최고의 가치 자비 (慈悲) mercy - 불교의 최고의 덕목**
상대방이 사랑하는 것을 사랑하는 마음, 상대방이 사랑하는 것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마음인 ‘자(慈)’와 상대방이 슬퍼할 때 함께 슬퍼할 수 있는 마음, 상대방이 슬퍼하지 않는 환경에 살 수 있도록 노력하는 마음인 ‘비(悲)’를 실천했다.
- ▶ 보살이란 자비를 깨닫고 묵묵히 실천하는 존재다.
- ▶ 붓다가 말한 ‘도덕적으로 사는 것’의 진정한 의미
도덕이란 지켜야 하는 율법이나 관습적 규칙이 아니라,
나만의 달콤한 쾌락을 포기하고 세상 고통의 한가운데서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것이다.
함께 희로애락을 경험하며 자기 삶의 의미와 세상의 이치를 깨달아가는 것이다.

Thank

you